

# 느티나무 그늘 아래 희망이 용솨음 친다

## 숲 속의 전남

<1> 담양 용오름마을·구례 현충공원

민선 6기 전남도가 '숲 속의 전남 가구기'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22개 각 시·군이 주민소득 향상, 경관 개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숲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가운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공모에 참여, 직접 숲을 조성하고 가꾸고 있는 마을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평주일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숲 조성'에 나선 마을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배경, 주민이 그리고 있는 미래 모습 등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가곡천 옆 1km 남지 산책로. 느티나무는 조만간 주민은 물론 여름이면 대거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그늘을 제공해줄 것이다.

### 담양 용오름마을

“모든 이에게 용의 기운을 주는 숲” 담장로를 타고 장성으로 가다가 용구산 이 한 눈에 들어오는 용흥사길로 접어들면 용오름마을이 보인다. 멀리 녹색의 산림을 눈에 넣고 햇살을 가득 품은 길 위를 달리며 상쾌한 기분을 느낄 때쯤 용오름 힐링펜션에 도착한다.

마을은 물론 산, 사찰, 길의 명칭에 모두 ‘용(龍)’이 들어간다. 43호 67명의 주민들은 ‘용’을 임금을 뜻하고,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를 낳은 숙빈 최씨가 이 마을 출신이라고 믿고 있다. 숙빈 최씨는 전북 정읍 태인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숙빈 최씨가 훗날 영조가 되는 연잉군을 낳기 위해 100일 기도를 올린 곳이 1700년 역사를 가진 용흥사, 영조를 의미하는 용구산과 이를 양쪽에서 지키는 장군봉, 투구봉 등도 설화를 뒷받침한다. 원래 몽성사였는데, 조

### 산림청 지원받아 펜션·동물농장·특산물 판매장 등 조성

#### “가곡천 느티나무 숲, 외지인에 쉼터...마을엔 미래자산”

선 제22대 왕인 정조가 용흥사라는 이름을 하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말과 한국전쟁 당시 2차례나 소실됐다가 1967년에서야 복원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수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2011년 산림청 산촌생태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마을은 본격적인 ‘오름길’에서 있다. 주민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인데, 30~50대 청년 16명이 김형준(47) 용오름에코힐링펜션 대표를 중심으로 마을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부터다.

가곡마을이라는 이름 역시 용흥리를 그대로 풀어쓴 용오름으로 바꾸고, 15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펜션 5동을 비롯해 식물원, 동물농장, 농기구전시관 등을 차례로 설립해 나갔다. 곶감, 고로쇠, 압화 재료 등 유

■가곡천 숲은  
-면적 : 1,000㎡  
-기간 : 2016.03~06  
-내역 : 느티나무 200주, 벤치 5점  
-장소 : 가곡천 제방 약 1km  
-목적 : 제방 유실 및 홍수 피해 예방, 관광명소 가곡천 경관 조성 및 쉼터 제공 등

를마다 마을을 찾아오는 고마운 외지인에게 그늘도 주고 싶었다.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와 나무를 심고, 첫 거름을 줬다. 용의 마을인 이곳에 용이 승천할 용흥저수지(월산2제)가 축조된 것은 지난 1988년의 일이다. 마을사람들은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매력적인 이 저수지가 생긴 이후 마을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물론 훌륭한 인물이 날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믿음이 느티나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듯하다. /윤현석기자 chad@kwangju.co.kr

### 구례 현충공원 ‘호국숲’ 참배객·주민 쉼과 여유의 공간 조성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구례는 지난 2011년부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현충탑, 참전유공자기념탑, 여순사건희생자위령탑 등을 한 데 모아 봉성산 자락에 4316㎡의 현충공원(사진)을 조성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잊지 말자는 지역민의 마음가짐이 간직된 곳이다. ‘흔들’이라는 작품명으로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은 햇빛, 깃발, 애국 추모를 모티브로 소통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공원은 3단 구조로, 맨 위에 현충탑, 그 밑에는 (구)참전기념탑에 새겨진 기념비문,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의 이름이 새겨진 참전유공자탑이 자리하고, 맨 아래 물길이 흐르도록 하는 등 배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구례읍사무소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물론 아파트, 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학생, 재향군인회 등 외지 참배객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자주 들러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육군31사단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도식을 갖고 21일부터 2주 동안 지리산 왕시리봉 일대에서 유해발굴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상징성을 갖고 있다.

현충공원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 구례군 새마을회(회장 박정태)는 탑, 화강암 계단 등 조형시설 외에 잔디로 뒤덮여 있는 공간에 그 의미를 더 하고 싶어 숲 속의 전남 사업공모에 참여했다. 나무를 심어 참배객과 인근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나라꽃 무궁화로 장식하고자 했다. 특히 잔디광장 한 가운데 화강암으로 태극문양을 만들고 하얀색과 붉은색의 무궁화를 위 아래 심어주었다.

박정태(67) 회장은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곳인데, 무엇인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화원들과 고민하게 됐다”며 “공원에 오는 분들에게 참배의 엄숙함과 함께 쉼과 여유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직접 나무를 심은 70여명의 새마을회 회원들은 매주 순번대로 공원을 찾아 보식, 맹아 및 가지치기, 배수관리, 제초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호국숲은  
-주소 : 구례읍 봉동리 498번지 일원  
-면적 : 660㎡  
-내역 : 무궁화 50주, 황금사철나무 1,000주, 홍가시 1,000주, 꽃잔디 등 3,000본, 파고라 2개, 벤치 10개 등  
-장소 : 구례 현충공원 잔디광장  
-목적 : 경관 조성 및 쉼터 제공 등

## “주민·방문객에 편안한 산책공간 제공하고파”

### 용오름에코힐링펜션 김형준 대표

“주민과 외지인 모두 산책할 수 있는 숲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형준(47) 용오름에코힐링펜션 대표는 17살이던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서울로 유학을 갔다가 30대 중반인 2004년 귀향했다.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기 위해 돌아온 고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었지만, 전혀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산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한 마을이 너무 예쁘게 보인 겁니다.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진짜 본모습을 볼 수 있게 된거죠.”



용흥사길 입구에서 보는 마을은 분지 형태로,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다고 김 대표는 당시의 감동을 표현했다. 하지만 마을의 ‘가난’은 여전했다. 농사를 지어도 빚만 쌓였다. 김 대표는 주민회의를 하고 3년을 준비해 정부부처의 사업공모에 참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귀향하면서 마주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찾아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펜션을 만들고, 농사를 모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시설들을 하나둘 놓으면서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봄이면 유치원생들이 탄 노란버스가 출저어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전거를 타던 주민은 오토바이를, 경차를 타던 주민은 중형차를 타고 다니게 될 정도가 됐다.

“체험학습장만 역대 수입을 올립니다. 당연히 농업회사법인 용오름의 재정상태도 넉넉해졌죠. 15명의 마을 학생들에게 3년째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담양군에도 최근 장학금을 내놓았어요. 돌아가신 어르신 두 분의 장례비도 지원했습니다.” 여름이면 1000대 이상 자동차가 줄을 설 정도로 외지인의 발길이 늘면서 최근에는 마을을 좀 더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도 시작됐다. “악취가 나서 소·돼지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더니 축산농가가 11가구에서 2가구로 줄었습니다. 2가구도 조만간 그만둔다고 하니 이제 냄새는 사라지겠죠. 이제 주민들이 무엇을 권해도 따라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